

외국인, 3개월째 ‘셀 코리아’… 증시 반등 가능성도 불투명

한달간 주식시장서 3.4조 순매도
두달 연속 조단위 매도세 이어져
20여년만에 코스닥 최대폭 하락

“기업들 실적개선 기대 크지않아
올해·내년 영업익 추정치 하향”

외국인들의 ‘셀 코리아’가 3개월째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발 고금리 장기화 우려와 증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잔재하고 있는 만큼 증시 반등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3조3896억원 가량을 순매도했다. 지난 9월에도 2조2822억원을 팔아치웠기 때문에 두 달 연속으로 조 단위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하면서 코스피도 지수 2300선을 내주며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다만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코스피가 전 거래일(2277.99)보다 23.57포인트(1.03%) 오른 2301.56에 장을 마감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장보다 소폭 상승하며 2301.56에 마감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코스닥지수는 지난 9월과 10월에 각각 9.4%, 12.5%씩 떨어지면서 2001년 닷컴버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단순한 수급 개선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보다는 체질 개선에 가까운 펀더멘털 반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장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도 크지 않아 최근 한 달 동안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3.4% 4.4%씩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수출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지 못하는 상황인 만큼 10월 수출입 동향도 주목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1% 증가한 550억9000만달러(74조4817억원)로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9.7% 줄어든 534억6000만달러(72조2726억원),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2조2183억원)로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10월에 수출이 흑자전환됐고, 경기도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펀더멘털(경제기초) 측면에서 국내 증시의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도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을 선볼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증시의 주가수익비율(PER17.08)과 주가순자산비율(PBR0.83)이 저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상승 여력 자체는 있지만 증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우려, 고금리 환경 지속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예단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국내 증시가 악세를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도 식고 있다. 지난 8월 16일 20조5040억원까지 도달했던 신용거래잔고는 10월 30일 기준 17조1838억원까지 떨어졌다. 이 연구위원은 “은행 예금금리가 3~4% 중반대, 단기채권이 5~6%대에 달하는 고금리 상황에서는 역머니무브(주식시장으로 흘러간 자금이 안전자산인 예금으로 되돌아가려는 현상) 수요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며 “증시 위축과 증권사들의 증거금률 상향 조정 등의 과정이 이뤄지면서 신용거래 규모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1면 ‘반도체 살아나자 수출’서 계속

“기술·품질 최우선… 도전·혁신 DNA 발전시켜야”

삼성전자, 창립 54주년 기념식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성장 견인 신사업 적극 발굴하고
AI·데이터 기반 생산·효율 향상을”

삼성전자가 위기 속에서도 ‘조격자’ 기술을 향한 도전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1일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창립 54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축하공연과 근속상 및 모범상 시상과 기념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한종희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을 포함해 임직원 400여명이 함께했다.

한 부회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임직원 노고에 감사하며 4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기술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최고의 고객 경험과 가치를 창출하며 ▲미래 준비를 더욱 강화해 지속 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경영을 함께 실천할 것 등이다.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1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수원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창립 5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특히 한 부회장은 기술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지켜야하는 경쟁력이라 꼽으며 시대 변화에도 삼성전자는 기술 선도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품질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도 언급했다. 불황기에는 단기적 성

과에 집착하기 쉽지만 오히려 도전과 혁신 DNA를 발전시킬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기술 격차를 바탕으로 재원을 확보해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자고 주문했다.

초연결도 빼놓지 않았다. 여러 제품을 잘 연결해 더 큰 가치를 제공하며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자며, 조직도 ‘고객 중심’ 기업을 위해 경계를 넘어 ‘원 삼성’으로 협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준법 문화 정착도 과제로 빼놓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고객이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미래 사회와 지구 환경을 위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로, 지속가능한 혁신 제품발굴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회장 ‘동행’ 철학을 따라 2주간 전 관계사 임직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나눔워크’ 캠페인을 추진한다.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기부 ▲사업장 인근 지역 사회 봉사 ▲헌혈 참여 등 ‘일상의 나눔’을 펼친다.

그 중에서도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 봉사활동은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오랜만에 재개했다. ▲장애인·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청소·배식 봉사를 하거나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을 찾아 아동들의 놀이·학습·문화 활동을 돕는다.

한 부회장은 “기존에 잘해왔던 사업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사업 발굴을 적극 확대해가자”면서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시스템을 혁신하여 경영 전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자”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수출 안정적인 우상향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

특히, 전기차 수출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 결과 9월까지 40억달러를 기록해 2022년 37억달러를 넘어섰다.

대 아세안 수출은 106억달러로 선박·석유제품 등 주요품목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EU(유럽연합)·CIS(독립국가연합) 수출은 감소했다. 다만, 최대수출시장인 대 중국 수출은 110억달러를 기록, 3개월 연속 100억달러 이상을 이어나갔다.

10월 수입은 원유(+0.1%)가 플러스를 기록한 가운데 가스(-54.3%), 석탄(-26.1%) 등 에너지 수입이 22.6% 감소하며 1년 전보다 9.7% 줄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무역수지는 16억4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올해 6월부터 5개월 연속 흑자기조를 이어갔다.

정부는 수출 플러스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안정적인 우상향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내년 초반까지 이어지는 흐름”이라면서 그 근거로 주력품목인 자동차, 선박, 일반기계 등 주요 수출품목 호조세와 반도체 개선세를 들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수출 감소가 -3.1%인데 컴퓨터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며 “반도체와 석유화학, 석유제품 이외 다른 품목도 상당히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HBM(고대역폭 메모리) 수요라든지 고사양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10월 메모리 반도체 자체만 보면 1.0% 수출이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주류 이어 햄버거 업계 가격인상… ‘먹거리 물가’ 또 켜짐

맘스터치·맥도날드, 일부 제품값 올려
서울유유·매일유업 등 유업체 동참

정부의 가격 인상 자제에도 우유를 비롯한 유제품, 소주와 맥주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먹거리 물가가 또 한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의 출고가를 6.95% 인상한다. 360ml 병과 1.8L 미만 페트류가 인상 대상이다. ‘켈리’와 ‘테라’ 출고가도 평균 6.8% 인상한다. 판매율이 높은 모든 500ml 캔은 가격을 동결했고, 발포주 ‘필라이트’의 355ml 캔과 1.6L 제품은 인상률을 최

소화했다.

소주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가격인상에 나서면서 경쟁사들의 가격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류 업계는 상반기 가격인상을 유보했지만 원료와 제조비 상승으로 더 이상 가격 인상을 미룰 수 없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소주와 맥주 출고가가 오르면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주류 가격도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소주 출고가가 70~80원 인상되면 식당에서는 인건비, 식재료 가격인상분 등을 더해 병당 1000원씩 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권 식당의 주류가격을 보면 소주가 5000~6000원, 맥주가 6000~7000원 선이다. 1000원씩 가격이 오르면 가격 인상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원 A(36)씨는 “엔데믹이에도 외식물가가 너무 오른 탓에 집에서 요리해 먹는 날이 많다”며 “연말이라 모임도 많은데 술값이며 밥값 등 전부 오르니 약속을 잡아야 할지 갈등된다”고 말했다.

주류 업계에 이어 햄버거 업계도 연쇄 가격 인상이 이뤄질 분위기다. 맘스터치는 최근 닭통가슴살 패티를 사용하는 버거 품목 4종의 가격을 300원씩

올렸다. 맥도날드도 2일부터 버거 4종, 맥모닝 메뉴 1종, 사이드 및 디저트 7종, 음료 1종 등 13개 메뉴를 평균 3.7% 인상할 계획이다.

롯데리아와 버거킹 등은 아직 가격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에선 조만간 가격을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유 가격 인상에서 서울유유허동조합을 시작으로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 유업체들의 가격 인상도 이어졌다.

주요 유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우유를 판매하고 있다. 서울유유는 ‘나100%우유(1L)’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기준 가격을 각각 3%와 4.9% 인상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